

광주 투표를 10년 내리막 “대선 걱정되네”

광주지역 투표율이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국 7대 도시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선관위와 지역정가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광주지역 투표율은 89.9%(전국평균 80.7%)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2002년 대선 당시에도 광주지역 투표율은 78.1%(전국평균 70.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광주시 투표율은 계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07년 17대 대선 투표율은 64.3%로 전국 6위, 2008년 18대 총선 투표율은 42.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4·11총선

총선 52%로 급감...전국 7대 도시중 감소폭 가장 커

호남 정치지도자 부재 탓...민주당 일각선 위기감도

광주시 투표율은 52.7%로 7대 도시 중 5위를 차지했다. 광주시 유권자 110만9000명 중 58만4000여명만 투표에 참여하고, 무려 52만 50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지역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도 10~15% 정도 감소해 민주당의 지지표 이탈이 5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호남에서 150만 표를 잃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광주지역 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대권 주자 등 호남 정치지도자 부재로 인한 기대감 상실과 민주당에 대한 심변화, 정권의 호남 차별 및 민주

당의 역할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광주지역의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5대·16대 대선에서 각각 39만표, 57만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던 사례를 고려하면 호남지역의 지속적인 투표율 감소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며 “연말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호남지역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24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합의

2개 법안만 처리...시급 민생법안 또 미루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주요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지난 16일 접촉을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여야 협의를 통해 24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가다가 잡혔다”고 밝혔고,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감기약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 등 두 가지 법안을 제외한 다른 주요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차가 커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몸싸움방지법)은 물론 산적한 민생법안의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황 대표와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수도권의 심각한 부동산거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법과 북한인권법, 민간인불법사찰 특검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운데)가 1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황 원내대표는 “부동산 활성화법은 민주당이 부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걸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경기가 위축 때문에 (경제가) 난리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현재 시행도 되지 않고 있는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를 첫 번째 개정법률안으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오만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총선 전의 ‘과거와 절연’, ‘친서민’

정책이 구호뿐이었음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전·월세값 상승이 언제라도 재연될 수 있고 자칫 주택가격 심리를 자극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더욱 힘들게 만들어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예기간인 올해 12월까지 차기 국회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신에 “18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라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법률안으로 들고 나오는 새누리당의 ▲지정된 일반약품의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의 재개정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초·중등교육법, 학교무상급식기금법의 제·개정 ▲남치기폭력국회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6639건으로 내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 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추진

4·11보선 2명 당선 의석수 5석...무소속 연대뿐 가능

민주통합당 독주·전남도 일방적 도정운영 제동 기대

통합진보당이 전남도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한다.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진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통합진보당 후보 2명이 새롭게 당선되면서 전남도의회 내 통합진보당 의원이 5명(비례 1석 포함)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은 17일 순천시 장천동 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4·11총선과 함께 여수 지역에서 치러진 전남도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2명이 새롭게 당선돼 총 의석수가 5석으로, 무소속 의원들(3명)과 연대할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전남도의원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 김민준(41·여수 5), 천준근(56·여수 6) 의원 등 2명이 당선됐다.

전남도의회 의원 62명 가운데 6명 이상일 경우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된다.

통합진보당이 무소속 의원과 연대해 전남도의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정치적 입지 강화와 함께 사실상 의회 내 ‘일당 독점’을 지속해온 민주통합당을 견제하고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지형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진보당(전 민주노동당)이 지난 2002년 1명의 전남도의원으로 출발했던 것을 감안하면 도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원이 2명이 나 당선된 것은 민주당에 대한 여

수시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박준영 도지사의 일방적인 도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의회 운영을 주도하고 있으며, 교육의원 5명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1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같은 전남도의회 내부 사정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 소속인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정책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노숙인 복지 조례 상정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정회권 교육위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를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조례는 광주시교육청과 직속기관,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 등이 사회적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또 각급 학교에 우선 구매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로 어윤의 사회적 환원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이 기대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의회 조호권(민·북구 5)·서정성(민·남구 2) 의원은 17일 사업 실행이나 실적 등으로 거리에 내몰린 노숙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07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보호·급식·의료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주거안정과 고용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노숙인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제도화했으며, 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이 설치한 복지시설에 대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의원은 “지속적인 불경기과 취업난으로 노숙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성근 “MB 언론장악 청문회 열겠다”

대표대행 취임후 KBS 노조 방문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대행은 17일 서울 여의도 KBS 새 노조 사무실을 방문, 격려한 자리에서 “(언론사) 총과업과 연대하는 자에게 국민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은 6639건으로 내달 2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으면 모두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방안을 내용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문대행은 “언론사 노조와 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대행은 구태의 단절을 선언한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의 특보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언론노동자들의 자유를 짓밟은 게 대표적인 구태”라며 새누리당에 김인규 사장 퇴진과 KBS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과 협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대행은 “과업장기화로 인해 국민에게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어 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서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한수물! 도 태양열로~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영업관리 사원모집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원 350kwh 생산 기준표)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NAVER 강남산업 검색

법인등록번호 : 409-8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칠만표방수제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물,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062)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061)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